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 안잠자기

##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일. 또는 그런 여자.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수록 용례
7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8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안잠자기'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일. 또는 그런 여자.

# 안잠자기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안잠자기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 표기 · 근거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20세기 |
|---|---|---|---|---|---|---|
| **안잠자기**<br>사전 표기 요약 | — | — | — | — | — | ●→ |
| **안잠자긔**<br>문헌 수록 표기 | — | — | — | — | — | ●→ |
| **안짬자기**<br>문헌 수록 표기 | — | — | — | — | — | ●→ |
| **안짬자기**<br>문헌 수록 표기 | — | — | — | — | — | ●→ |
| **안짬재기**<br>문헌 수록 표기 | — | — | — |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1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안잠자기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5종
안잠자기, 안잠자긔, 안짬자기, 안쌈자기, 안짬재기

# 안잠자기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안잠자기’는 20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말의 구성과 어원

‘안잠자기’는 동사 어간 ‘안잠자-’에 명사 파생 접미사 ‘-기’가 결합한 것이다.

## 표기와 소리의 특징

20세기에 ‘안잠자긔’, ‘안짬자기’, ‘안쌈자기’, ‘안짬재기’ 등 여러 형태가 쓰였는데, ‘안잠자긔’는 ‘기’와 ‘긔’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어 표기가 섞여 쓰인 것이고, ‘안짬자기’, ‘안쌈자기’, ‘안짬재기’ 등은 제2음절의 초성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이 중 ‘안쌈자기’는 ‘ㅈ’의 된소리를 ‘ㅉ’으로 표기하는 옛 관습을 따른 것이고, ‘안짬재기’는 모음 ‘ㆍ, ㅓ, ㅏ’가 뒤따르는 ‘ㅣ’ 모음의 영향으로 ‘ㅣ, ㅐ, ㅔ’가 되는 ‘ㅣ’ 역행 동화 현상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 문헌 속의 안잠자기

전체 용례 7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안잠자기, 안잠자긔, 안짬자기 외 2종 용례 7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안잠자기, 안잠자긔, 안짬자기, 안쌈자기, 안짬재기

출처 1922 동아일보 1월 20일 1면

용례 01

문헌 용례

그러니 아모릐도 안잠자기 하나를 더 두어 주지 안으시면 나는 아모릐도 빅여 내지 못하겟서요.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3 조선일보 12월 17일 4면

용례 02

문헌 용례

수중 드는 아해 외에 안잠자긔싸지두 의식주 셰 가지가 모다 사치스런 살님이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8 동아일보 3월 14일 2면

용례 03

문헌 용례

엇그제싸지 자긔도 행랑어멈을 부리고 안잠자기를 두고 지내든 사람이 아모리 재산이 업서젓다 할지라도 말 알고 풍속 가튼 조선 사람의 집에 가는 것이 더욱 창피하다 하야.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8 조선일보 12월 21일 3면

용례 04

문헌 용례

그래서 침모, 안짬자기, 어멈, 가튼 직업을 소개해 주고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8 별건곤 제16·17호 84면

용례 05

문헌 용례

只今은 안房, 건넌房, 밧갓房, 모다 8間 집에 우리 두 食口와 내 동생과 안쌈자기와 가티 살고

현대어 풀이

지금은 안방, 건넌방, 바깥방, 모두 8칸 집에 우리 두 식구와 내 동생과 안잠자기와 같이 살고

출처 1930 조선일보 9월 7일 5면

용례 06

문헌 용례

나종에는 남의 집 행낭으로 안잠자기로 쏘는 부억씌기로 굴르고 굴러서 멧 윈(幾圓)의 금전을 모아『못씨』장사를 하엿든 것이엿습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6 삼천리 제8권 제8호 282면

용례 07

문헌 용례

안짬재기의 부른는 소리를 드럿는지. 혹은 그의 부스러거리는 소리에 얕게 드른 아츰잠이 깨엿는지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 안잠자기 관련 낱말

안잠자다

## 안잠자기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안잠자기의 뜻과 역사

#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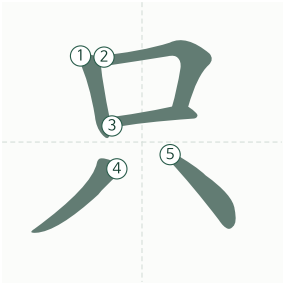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 只

뜻·음 다만 지

총 5획 · 부수 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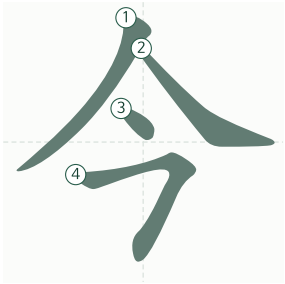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只/

## 今

뜻·음 이제 금

총 4획 · 부수 人



hanja.wordrow.kr/한자/今/

## 房

뜻·음 방 방

총 8획 · 부수 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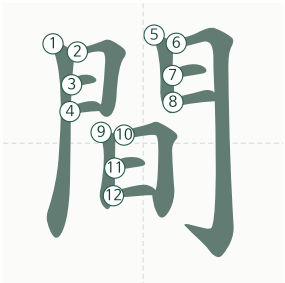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房/

## 間

뜻·음 사이 간

총 12획 · 부수 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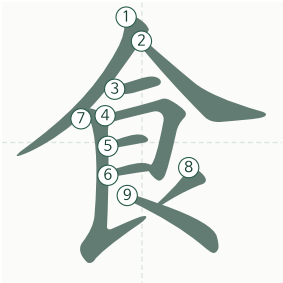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間/

## 食

뜻·음 밥·먹을 식

총 9획 · 부수 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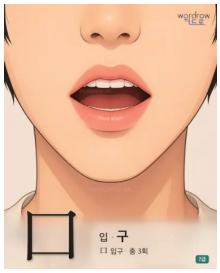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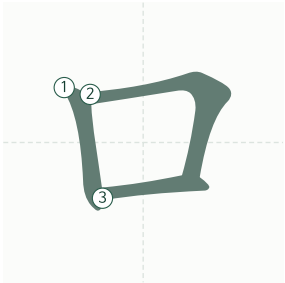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食/

## 口

뜻·음 입 구

총 3획 · 부수 口



hanja.wordrow.kr/한자/口/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

# 한자 한눈에 보기

2 / 2 · 8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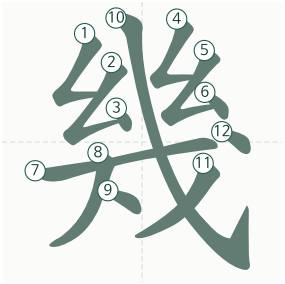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 幾

뜻·음 몇 기

총 12획 · 부수 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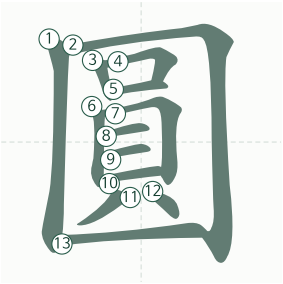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幾/

## 圓

뜻·음 둥글 원

총 13획 · 부수 口



hanja.wordrow.kr/한자/圓/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